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윤 관 기*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 정도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 B, C교육대학교 9개 학과에 재학중인 총 237명의 초등예비교사(남학생: 73, 여학생: 164)를 대상으로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 남학생 29명(39%), 여학생 145명(88%)이 피아노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음악 실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음악 실기 스트레스 점수는 남학생(23.54점)이 여학생(21.4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악 실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계수가 -.504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은 뚜렷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제어: 스트레스, 음악 실기 스트레스,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연구도구
 -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논의

*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I. 서론

교사의 전문성은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모든 수업행위에 근거하여 판단된다(유한구, 2001). 이러한 수업행위를 위해 예비교사들은 각 교과에 적절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 예비교사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이론적으로 교과교육학 지식을 축적해 왔고, 신규교사로 임용되었을 때 이를 적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은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실행하고 적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것이 현실이기에 변화무쌍한 교실수업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족한 실제 교과 수업을 해 볼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기도 하다(김은주, 2010; 이봉주, 2013).

수업을 설계한다는 것은 교사로부터 이루어지는 전문적 활동이다. 무엇보다 최적화된 수업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자신이 지도해야 하는 학생들의 교과 수준능력에 맞춰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뜻하기도 하다(Shulman, 1986). 현장의 경력교사들도 수업설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교실환경과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시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설계 과정은 교사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고 진행되는 상황의 문제인식에 따라 설계되며, 수업에서 해결되는 내용들의 복잡성 때문에 비구조화된 문제해결과정으로 볼 수 있다(Jonassen, 2008).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을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와 같은 문제 상황과 유사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며, 예비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 그리고 교과 수업기술 등으로 문제해결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해결력이 높은 교사들은 다양한 문제적 상황을 제공받아 이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그 능력이 높게 나타나며, 자신의 수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지식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교과 전문성과 실천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경철, 김안나, 2010; Korthagen & Lagerwerf 2001; Levine, 1993; Shulman, 1986).

학교현장에서 음악교사는 음악교과를 지도함에 있어 교과지식 및 음악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영역을 지도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음악수업 실행능력과 교수역량을 필요로 한다. 예비교사들에게 음악교과 수업실행을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나가기 이전 수업실연(teaching demonstration)을 통해 교과상황을 이해하는 한편,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실천적 지식의 경험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오지향, 2012). 그러므로 예비교사들이 계획하는 수업실연은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인 만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특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현직교사로서 수업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한다(김원정, 2010).

음악교과 수업실연에서 주로 초등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숙지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한 후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발표한다. 각 활동에서 자신의 음악교과 지도 및 실기능력을 발휘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실연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더욱이 예비교사들 사이에서 음악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정상 음악실기과목과 이수해야 하는 시수는 각 교육대학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1~2학년을 거치면서 실기교과목을 모두 수강하기 때문에 3~4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실기 능력은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음악 실기수업에서 받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문경숙, 2009; 윤관기, 2015).

또한 수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음악수업은 음악 실기로 인한 교사 부담감이 큰 편이고 음악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과 현장과의 연계 부족 및 교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그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문경숙, 2009; 정다은, 2011). 이러한 스트레스는 교과에 대한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 자신은 물론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실기과목에 대한 긴장, 염려, 좌절, 걱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내용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이 느끼는 음악 실기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개념 정의

스트레스는 라틴어인 ‘stringer’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뜻은 ‘팽팽하게 죄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어려움, 역경, 곤란의 뜻으로 사용되던 것이 어떤 체계에 의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 또는 신체 생리적 향상성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 또는 지각된 위협으로 정의되고 있다(Hall & Mansfield, 1971; 이완구, 1995; 이종하 외, 2012, p. 128). 스트레스를 조금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로 볼 수 있다.

현재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 중에서 교직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루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간, 그리고 교사의 교직생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사가 아이들만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다양한 교육활동 전문가적 견해를 지녀야 하며, 때론 행정가로서 행정업무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직업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 홀, 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teacher job stress)는 연구접근 방법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교사가 자신의 직무에서 받게 되는 직무상의 결과로 인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로서 자신의 요구가 자아존중감이나 생활에 위협으로 지각되는 상태 또는 교사가 학교 환경에서 위협적인 경험으로부터 지각하는 개인적, 정서적인 증세로서 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행되는 직무로 인해 불유쾌한 정서적 영향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로 정의한다(김상효, 임준용, 2014, p. 218).

2. 음악 실기 스트레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운영의 기준과 교육과정은 조금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교육과정과 전공(교직)과정으로 구분하며, 전공과정은 다시 교육학교육, 교과교육학, 심화과정, 교육실습, 논문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심화교육과정을 선택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과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입학과 동시

에 선택되는 전공에 따라 수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교과전담을 수행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전공을 선택한다(곽현규, 2010; 김해진, 2014).

음악교육을 위해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미국에서는 음악을 지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교과지식은 물론 음악활동 수업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창작하고 지도하는 기능적인 측면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문경숙, 2009). 이에 교육대학교에서는 교과기본능력의 교과내용학 측면에서 실기교과를 지도하고 있으며 일반과정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음악 실기과목으로는 초등가창실기 및 지도법, 초등합창실기 및 지도법, 초등창작실기 및 지도법, 초등국악가창실기 및 지도법, 초등기악실기 및 지도법, 악기론, 장구실기 및 지도법, 단소실기 및 지도법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교육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통적인 음악실기 영역은 피아노, 성악, 그리고 국악분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3개 교육대학교에서는 주로 ‘음악실기Ⅰ, 음악실기Ⅱ’와 같이 교육과정에 필수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각 교육대학교마다 강의를 운영하는 학기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음악실기 과목들은 주로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다. 음악실기의 구체적인 영역들은 가창실기(성악실기), 피아노(피아노반주법, 건반악기), 국악실기(단소, 장구실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실기영역에서 리코더, 코다이교수법, 그리고 지휘법을 지도하고 있었다. 초등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음악실기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학점에 해당하지만 여러 음악실기 영역을 한꺼번에 익혀야 하는 점이 교육과정을 통해 보여 지고 있다. 음악실기 과목들은 많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커다란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습에 투자되는 시간대비 학점수가 낮고, 불공평한 평가 시스템으로 개별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실기(피아노, 가창, 단소, 장구 등)영역을 익히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박남기, 1996). 무엇보다 음악실기 과목들이 1학년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그 연계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 실기교과목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이므로 ‘교사 직무스트레스¹⁾’라는 용어대신 ‘음악 실기 스트레스’로 정의하였으며, 음악실기 스트레스는

1) 교사 직무스트레스(teacher job stress)는 교사가 자신의 직무에서 받게 되는 직무상의 결과로 인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로서 자신의 요구가 자아존중감이나 생활에 위협으로 지각되는 상태 또는 교사가 학교 환경에서 위협적인 경험으로부터 지각하는 개인적, 정서적인 증세로서 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행되는 직무로 인해 불유쾌한 정서적 영향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로 정의한다(고정자, 2009).

‘초등예비교사들이 음악 실기수업에 느끼게 되는 개인적, 정서적 부담, 그리고 자신의 실기능력에 대한 긴장, 염려, 좌절, 걱정, 정서적 압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이에 대한 확실성과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이 자아존중감이라고 본다면,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밑바탕에서 개인의 내적 요인에 대한 믿음과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신념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장근주, 심소연, 2013; Bandura, 1977).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기 위한 최선의 동기유발로 자신의 무엇을 해 낼 수 있는지 개인적 능력을 지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송성순, 김판희, 2013; Zimmerman, 2002). 무엇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학업성취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김아영, 박인영, 2001; Bandura, 1977).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음악교과 자기효능감(Music Subject Self Efficacy)은 예비교사들이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음악교과를 지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음악을 지도하게 될 교사로서의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수신념은 교사로서 자신의 교수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교사 자신의 역할과 수준에 맞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도 연관되어 있다(조준오 외, 2011; 임성민, 2011).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교사 스스로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스스로의 평가에도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니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큰 교사일수록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시하여 학업성취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Bandura, 1993; Woolfolk & Davis, 2006). 결국 음악실기 능력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중국에는 자신의 음악교수 신념에 대해 불안과 함께 음악수업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 정도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A교육대학교 4학년 2개학과(컴퓨터교육, 유아특수교육), B교육대학교 3학년 4개학과(사회교육, 윤리교육, 국어교육, 수학교육), 그리고 C교육대학교 2학년 3개학과(윤리교육, 국어교육, 컴퓨터교육)의 258명이며, 이중 설문에 불성실한 답변(응답하지 않거나, 수거되지 않은 설문)과 중복 답변(하나의 번호로 설문에 응답)을 제외한 237명(91.8%)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은 모두 레슨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악 실기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어 음악교육 전공과 타 교육 전공과의 비교분석이 무의미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다음 <표 1>은 교육대학교 전공별 연구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표 1> 연구대상

학교	학과	남	여	전체
A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	7	20	27
	유아특수교육	7	26	33
B교육대학교	사회교육	8	18	26
	윤리교육	6	15	21
	국어교육	7	23	30
	수학교육	9	14	23
C교육대학교	국어교육	15	14	29
	윤리교육	9	16	25
	컴퓨터교육	5	18	23
전체		73	164	237

초등예비교사들이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음악레슨경험의 유무와 그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남학생이 29명(39%), 여학생은 145명(88%)이 음악레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악레슨의 형태에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피아노학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레슨(피아노)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표 2>는 음악레슨경험의 유무와 기간, 그

리고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음악레슨경험의 유무, 기간, 형태

문항	내용	남학생	여학생
음악레슨경험	있다	29(39%)	145(88%)
	없다	44(61%)	19(12%)
	전체	73(100%)	164(100%)
음악레슨기간	1년 미만	14(49%)	39(27%)
	1년~3년	10(34%)	73(50%)
	4년~7년	5(17%)	24(17%)
	7년 이상	.	9(6%)
	전체*	29(100%)	145(100%)
음악레슨형태	개인레슨	3(11)	25(18%)
	그룹레슨	.	7(4%)
	피아노학원	26(89%)	110(76%)
	사설음악단체(합창단, 오케스트라, 국악합주단 등)	.	3(2%)
	전체*	29(100%)	145(100%)

*음악레슨기간과 형태는 레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여학생 174명의 응답임.

2. 연구도구

1) 음악 실기 스트레스 측정 도구

이번 연구를 위한 음악 실기 스트레스 설문지는 코헨(Cohen, 1988)에 의해 개발된 스트레스 자각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이종하 외(2012)가 새롭게 번역한 것을 본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코헨의 스트레스 자각척도는 특정 사건에 따른 척도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객관적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개인이 직접 느끼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도구이다.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1983년에 개발되어 입증되었으며 총10 문항(6개의 긍정문항과, 4개의 역채점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9 문항의 척도는 4점 척도(1=거의 없었다, 2=때때로 있었다, 3=자주 있었다, 4=매우 자주 있었다)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다. 10번 문항은 음악 실기과목 중에서 우선순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역을 선택하는 문항이며, 다음 <표 3>은 음악 실기 스트레스 9문항에 대한 신뢰도로서 전체 신뢰도는 .924이다.

<표 3> 음악 실기 및 수업시연 스트레스 신뢰도

항목	번호	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음악 실기 스트레스	1, 2, 3, 4, 5, 6, 7, 8, 9	9	22.16	6.57	.924

2)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은 릭스와 에녹스(Riggs & Enochs, 1990)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과학교수효능감 조사지(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의 척도를 임성민(2011)이 수정·보완한 것을 음악교과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은 4개 하위요소(학습효능감, 교수효능감, 성과기대감, 학습효능감)를 가지고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척도(Likert-Type Scale)로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자의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부정형 문항을 작성하였고, 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높은 것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4>는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로서 전체 신뢰도는 .869 이다.

<표 4>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구성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학습효능감	1,4,6*,12,17*,18,20*,23	8	25.23	5.53	.864
교수효능감	2*,3,9*,10*,11*,13,15,16*	8	23.19	4.77	.780
성과기대감	5,7,8,14,19*,21*,22,24	8	27.96	3.32	.614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24	76.40	10.91	.869

(*: 역채점 문항)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이번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을 위해 초등학교 현장교사 4명(음악을 지도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학년 전담교사)의 조언과 초

등 예비교사 20명에게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한 바탕으로 설문지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초등예비교사들은 음악교과교육학 과목을 통해 음악교과 수업활동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을 선택하고 모둠별로 40분간 수업시연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음악수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그대로 초등예비교사들에게 느낄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다른 모둠의 수업시연에 대한 수업참관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시연에 대해 자기피드백을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음악 수업시연에서는 우선 2009 개정 및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지도안을 구성하고, 각 활동영역에 맞는 음악교과 지도능력 및 실기능력을 제시하였다. 가창수업에서는 교사범창 및 피아노반주 능력, 기악수업은 교실악기 연주(리코더, 리듬악기, 가락악기, 지휘) 및 합주능력, 그리고 감상과 창작수업에서도 단원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실기능력을 활용하도록 수업을 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 처리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초등예비교사의 배경변인(frequency analysis), 성별에 따른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독립 표본 검정(Independent-Sample t-test), 그리고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simple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의 정도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1. 음악 실기 스트레스

음악 실기능력은 교사양성기간 동안 쉽게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초등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음악 실기능력에 대해 낮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윤관기, 2016).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대한 남·여 학생의 등분산 결과 두 집단이 동질하며, $P(T \leq t)$ 양측검정 부분이 .03과 .02로 유

의수준 .05보다 작기 때문에 남·여학생 간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음악 실기 스트레스의 평균점수에서 남학생은 23.54점으로 여학생의 21.48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음악 실기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점수는 여학생이 77.57점으로 남학생 73.78점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 실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음악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비교

통계분석	음악 실기 스트레스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N	73	164	73	164
평균	23.54	21.48	73.78	77.57
분산	31.78	45.81	113.37	116.26
표준편차	5.65	6.83	10.43	10.94
t 통계량	2.16*		-2.31*	
P(T<=t)양측검정	.03		.02	

*p < .05

음악 실기 스트레스에 대한 답변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만 음악 실기 스트레스가 일상생활과 다른 교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예비교사들은 음악 실기능력이 자신의 뜻대로 향상되지 않을 때(66.3%),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73.9%), 학과 친구들과 자신의 실기능력이 비교 받았을 때 스트레스(73.8%), 그리고 교생실습에서 실기능력에 대한 스트레스(74.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6>은 음악 실기 스트레스 항목별 응답 내용이다.

<표 6> 음악 실기 스트레스

내용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평균	표준편차
나의 실기 수준 때문에 당황했던 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23 (9.7)	67 (28.3)	106 (44.7)	41 (17.3)	2.69	.868
음악실기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34 (14.3)	68 (28.7)	104 (43.9)	31 (13.1)	2.55	.893

내용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평균	표준 편차
음악실기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0 (29.5)	95 (40.1)	52 (21.9)	20 (8.5)	2.09	.920
음악실기능력이 생각대로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21 (8.9)	59 (24.8)	121 (51.1)	36 (15.2)	2.72	.826
음악 실기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 짜증을 많이 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122 (51.5)	68 (28.7)	28 (11.8)	19 (8.0)	1.76	.949
나의 실기능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준다는 느낌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141 (59.5)	51 (21.5)	26 (11.0)	19 (8.0)	1.67	.961
음악 실기 학점을 낮게 받을 것이라는 느낌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26 (11.0)	36 (15.1)	95 (40.1)	80 (33.8)	2.96	.964
다른 학생들과 실기능력 차이로 인해 좌절했던 경험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36 (15.2)	26 (11.0)	112 (47.2)	63 (26.6)	2.85	.982
교생실습이나 음악교과에서 수업시연에 나의 실기에 대해 걱정을 했던 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36 (15.2)	25 (10.5)	119 (50.2)	57 (24.1)	2.83	.963

음악 실기과목 중에서 남·여학생 모두 피아노실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들은 국악실기, 여학생들은 성악(가창실기)실기를 2순위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학생들은 교사범창과 기악연주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실기과목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10번 문항은 순위에 따라 유효점수(순위에 따라 3, 2, 1점)를 환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음악 실기 스트레스 우선순위 과목

실기 과목	남학생 우선순위			점수	순 위	실기 과목	여학생 우선순위			점수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피아노	62	42	·	270	1	피아노	103	85	56	535	1
장구	35	27	11	170	2	성악	67	100	45	446	2
단소	31	30	7	160	3	장구	49	86	69	388	3
성악	14	28	4	102	4	리코더	37	76	21	284	4
리코더	7	4	3	32	5	단소	35	56	42	259	5
지휘	2	·	·	6	6	지휘	18	4	·	58	6

2.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계수가 -.504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8>은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표 8>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실기 스트레스
자기 효능 감	Pearson 상관	1	-.504**
	유의확률(양측)		.000
	제곱합 및 교차곱	28093.300	-8510.460
	공분산	119.039	-36.061
	N	237	237
실기 스트 레스	Pearson 상관	-.504**	1
	유의확률(양측)	.000	
	제곱합 및 교차곱	-8510.460	10142.962
	공분산	-36.061	42.978
	N	237	237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음악 실기 스트레스		-.504**	

** p < .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정도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A교육대학교 4학년 2개학과(컴퓨터교육, 유아특수교육), B교육대학교 3학년 4개학과(사회교육, 윤리교육, 국어교육, 수학교육), 그리고 C교육대학교 2학년 3개학과(윤리교육, 국어교육, 컴퓨터교육)의 237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음악레슨경험을 경험한 초등예비교사 중에서 남학생은 29명(39%), 여학생은 145명(88%)이었으며 대체적으로 피아노학원, 개인레슨,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음악프로그램의 순서로 음악레슨을 경험했다는 응답을 하였다.

둘째, 음악 실기 스트레스는 남학생(23.54점)이 여학생(21.48점)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악 실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은 피아노실기 이외의 실기영역인 교사범창, 리코더에서 남학생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결과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음악 실기 스트레스는 실기과목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와 음악교과에 대한 자신감 결여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생실습에서 초등예비교사들의 수업시연에 대한 염려, 걱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음악 실기 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계수가 -0.504 ,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부적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음악 실기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지수는 낮아지며, 음악 실기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지수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실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음악수업의 질은 교육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사의 자질에 의해 결정되며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 수업을 위해서는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다. 현재 교육대학교에서 음악 실기를 수강하고 있는 초등예비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 실력의 정도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입학생들의 수준별 음악실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음악 실기 수업으로 인한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의 증가는 결국에는 음악을 즐겁고 행복하게 학습해야 할 미래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분명히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는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음악교과 수업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음악수업시연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음악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초등예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의 결여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전체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과 국악영역을 배제한 연구진행의 한계점으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국악 실기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실기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자 (2009). 교사들의 직장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원인과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47-268.
- 곽현규 (2010).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연구: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연구원**, 26(5), 65-79.
- 김경철, 김안나 (2010). 예비 유아교사의 모의수업을 통한 수업분석의 경험. **유아
교육학논집**, 14(1), 399-424.
- 김상호, 임준용 (2014). 중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에서 내
외 통제성,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0(2), 215-249.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
학회**, 39(1), 95-123.
- 김원정 (2010). 예비 체육교사의 수업시연을 통한 자기수업반성에 관한 연구. **한
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25-52.
- 김은주 (2010). 실천적 지식의 탐색: 교사교육에의 함의와 문제. **한국교원교육연
구**, 24(4), 27-46.
- 김혜진 (2014).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 실태조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김 홀 (2016).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학생 간 인간관계 및 학
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 연구. **통합교육과정연구**, 10(1), 127-148.
- 문경숙 (2009). 초등학교 음악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탐색. **이화음악논집**,
13(1), 94-133.
- 박남기 (1996). 교대생이 바라본 초등 교원 양성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
국초등교육학회**, 10(0), 219-264.
- 송성순, 김관희 (201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부모양육행동, 학습자의 자기효능
감 및 목표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2(2), 103-119.
- 오지향 (2012).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수업실연 실태조사. **음악교
육연구**, 41(1), 191-227.
- 유한구 (2001). 수업 전문성의 두 측면: 기술과 이해. **한국교사연구**, 18(1), 69-84.
- 윤관기 (2015). 동료피드백과 자기평가 활동이 초등예비교사의 음악교과 자기효능
감 향상에 미치는 연구. **예술교육연구**, 13(1), 37-54.
- _____ (2016).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先)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

- 관계 연구. **음악교육연구**, 45(4), 115-136.
- 이봉주 (2013). 중등수학 예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포트폴리오 활용. **수학교육**, 52(2), 175-190.
- 이완구 (1995).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4(0), 193-223.
- 이종하, 신철민, 고영훈, 임재형, 조숙행, 김승현, 정인파, 한창수 (2012).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20(2), 127-134.
- 임성민 (2011).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예비과학교사들의 자기효능감. **과학교육연구지**, 35(1), 12-22.
- 장근주, 심소연 (2013).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 **음악교육연구**, 42(4), 101-120.
- 정다은 (2011). 음악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음악교육연구**, 40(3), 25-58.
- 조준오, 송주연, 김윤희 (2011).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5), 55-7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Cohen, S. (1988).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31-67.
- Hall, D. T, & Mansfield, R. (1971).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response to external str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0), 533-547.
- Jonassen, D. H. (2008). Instructional design as design problem solving: An iterative process. *Educational Technology*, 48(3), 21-26.
- Korthagen, F. & Lagerwerf, B. (2001).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how does it work? In F. A. J. Korthagen, J. Kessels, B. Koster, B. Lagerwerf, & T. Wubbels. *Linking practice and theory: The pedagogy of realistic teacher education* (pp. 175 - 206).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vine, G. (1993). Prior mathematics history, anticipated mathematics teaching

- style, and anxiety for teaching mathematics among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Group for the Psychology of Mathematics Education, North American Chapter Asilomar, California October 17-20.
- Rigg, I. M., & Enochs, G.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6), 625-637.
- Shulman, L.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 Woolfolk, A., & Davis, H. A. (2006). Teacher self-efficacy and its influence on the achievement of adolescents. In F. Pai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117-137. New York: H. H. Freeman.
- Zimmerman, B. J. (2002).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An overview. *Theory and Practice*, 41(2), 64-70.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 Performance Stress and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sic Education Self-Efficacy

Gwan-Ki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 performance stress and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sic education self-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7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39%(n=29) of male and 88%(n=145) of femal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had attended private piano institute before they entered the university of education. Second the music performance stress was higher in mal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23.54) than femal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21.48). These results show that mal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are more stressed about music performance than femal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 performance stress and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sic education self-efficacy were investigated using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here was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on music performance and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sic subject self-efficacy($r = -.504, n = 237, p < .01$).

Key words: stress, music performance stress, music education self-efficacy

투고일: 2017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8년 1월 16일(1월 21일), 게재확정일: 2월 3일